www.stylechosun.co.kr

10

October 2025
vol. 292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New For Men

Cartier

Hermès, drawing on your mind
HERMÈS
PARIS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

THE PREMIÈRE WATCH

프리미에르 워치

ÉDITION ORIGINALE

Contents

OCTOBER 2025 / ISSUE.292

08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0_SELECTION 기능적인 아이템부터 워치 & 주얼리의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스포티 시크 무드.
11_SPEED CRUSH 레이싱과 뗄 수 없는 워치 브랜드의 숙명.
12_'산업 도시의 미술 축제는 어떻게 성장해가는가? 올해도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주 무대로 하는 세토우치 트리엔날레가 일찌감치 막을 올렸고, 초가을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가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예술감독 후르 알-카시미(Hoor Al-Qasimi)는 시인 아도니스의 시집에서 차용한 '재와 장미 사이의 시간(A Time Between Ashes and Roses)'을 주제로 내걸고 이를 통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라는 생명의 존엄을 바탕에 둔 광의의 생태적 질문을 던진다.
15_MASTER THE MOMENT 수백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순간, 기계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이 된다
16_THE TIMELESS ALLURE 20세기 주얼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중 하나가 된 까르띠에 팬더 컬렉션을 재조명한다.
20_HIGHLIGHTS OF 2025 F/W RUNWAYS 트렌드의 시작점인 런웨이에서 짚어본 일곱 가지 굵직한 백 & 슈즈 트렌드.
22_THE ETERNAL ICONIC 프라다 갤러리아(Galleria) 백은 형태적으로 해체하기보다 클래식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디테일과 디자인을 적재적소에 적용해 재해석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디자인의 영속성과 하우스의 창의적 비전을 증명하려는 듯 갤러리아 백은 늘 색다르며, 섬세한 듯 대담하게, 그리고 무한히 피어나고 있다.
26_GET THE LIST 워치와 주얼리, 패션, 액세서리까지. 가을 남자를 위한 쇼핑 리스트.
28_AUTUMN PERSONA 가을, 남자의 시간. 풍성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뉴 룩 포트폴리오.
36_ENJOY, TASTES OF EUROPE! 짙게 배어든 빛 사이로 드러난 형형색색의 가을 향.
40_MEN IN SCENTS 가을 남자, 향에 취하다.
41_INSIDE STORY 화장품을 고르고 바르는 데 능숙한 요즘 남자의 가방 속을 들여다봤다. 부족함 없이 가방을 가득 채운 다채로운 남성 뷰티 에센셜.
42_EDITOR'S PICK 계절이 바뀌는 지금, 플로럴과 우디의 깊은 향이 조화를 이루는 향수와 캔들부터 에센셜한 스킨케어, 메이크업으로 완성하는 이달의 뷰티 셀렉션.

28

12

10

26

강인함과 강렬한 매력, 개성을 지닌 팬더는 까르띠에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다. 올해 까르띠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사진 속 팬더 이실레 네크리스는 중앙에 15.28캐럿 카보숑 컷 에메랄드를 향해 덤빌 듯한 자세를 취한 팬더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보민 bomingg0129@gmail.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 GRAFF.COM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tay Artistic

꽃 어레인지먼트는 물론 꽃을 담는 오브제를 직접 바잉해 국내에 소개하는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무헤(MUHE). 이번 시즌에는 수많은 베이스(vase) 브랜드 중 2백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브마이어(LOBMEYR)를 선택했다. 로브마이어가 지닌 역사와 비례해 화병부터 샹들리에까지 제품의 스펙트럼 역시 넓은 편. 그중에서도 수직으로 길게 뻗은 투명한 유리 화병과 호리병 세이프의 블랙 화병에서 조형적 요소를 엿볼 수 있는데, 일차원적인 화병의 쓰임새를 넘어 한 공간의 분위기를 고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오브제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올가을 요란하지 않은 공간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헤가 제안하는 오브제를 눈여겨보자. 문의 www.mu-he.com

Be Mine

파리지앵 하이 주얼러 쇼메(Chaumet)의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인 벌과 벌집 구조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비 드 쇼메 펜던트는 육각형 허니콤 모티브와 다이아몬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끝없이 이어지는 원형을 형상화하며 무한한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메종만의 미러 폴리싱 기술과 유연한 연결성으로 다양한 레이어링과 스타일링이 가능해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글로벌 앰배서더 차은우와 함께한 비 드 쇼메 캠페인은 적절한 착용 예를 보여준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을 일상 속 예술로 승화한 비 드 쇼메 컬렉션과 차은우의 빛나는 만남, 기대해도 좋다. 문의 1670-1180

Case by Case

실용성을 넘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카드 지갑 4.
(위부터) 강렬한 레드 컬러 카프스킨 소재에 강아지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캘비 카드 지갑 1백23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천연 악어가죽으로 트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딥 그린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 7 따스케 1백15만원대 **콜롬보.** 문의 1600-0558.
트리옹프 스냅 버튼 잠금장치로 카드 분실 위험을 줄여주는 바이폴드 카드 지갑 64만원대 **셀린느.** 문의 1577-8841.
신용카드 슬롯으로 수납공간이 넉넉하며 링을 부착해 후크 또는 넥 스트랩으로 자유롭게 연출 가능한 익스트림 3.0 지퍼 포켓형 8cc 카드 홀더 44만원대 **몽블랑.** 문의 1877-5408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Shades of Elegance

샤넬이 선보인 2025 F/W 시즌 아이웨어 컬렉션은 클래식하면서도 젠더리스한 디자인으로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을 담아낸다. 이번 시즌은 특히 다채로운 프레임이 눈에 띈다. 선 굵은 스퀘어부터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버터플라이, 시크한 무드를 강조하는 캐츠아이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라인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그러데이션 렌즈와 샤넬 특유의 아이코닉한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였다. 데일리 룩은 물론 특별한 날까지 스타일에 완성도를 더하고 싶다면, 아이코닉한 샤넬의 아이웨어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080-805-9628

Modern & Structural

그라프 로렌스 시그니처 컬렉션은 하우스 최초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다이아몬드 라인이다.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제격인 모던한 뱅글 스타일이며 다양한 브레이슬릿과 자유롭게 레이어링이 가능하다. 미니멀한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 골드로 출시되며 화려함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버전으로도 선보인다. 이외에 유려한 디자인의 링도 출시되니 정확한 정보는 그라프 공식 홈페이지(graff.com)를 주목해볼 것.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Ocean's Time

오메가는 지난번 터쿼이즈 컬러 디테일이 들어간 월드타이머 씨마스터 컬렉션의 인기에 힘입어 상용화된 버전의 터쿼이즈 씨마스터 아쿠아 컬렉션을 선보인다. 케이스 사이즈는 38mm와 41mm, 두 가지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과 같이 무광 블랙 세라믹 베젤에 시선을 사로잡는 청록색 바니시 다이얼이 특징. 블랙 PVD 코팅 아워 마커와 핸즈는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로 채워 어두운 환경에서도 푸른빛을 발산한다. 블랙에 포인트를 더하는 청록색 스티칭은 전작 그대로 따왔다. 41mm 모델은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을, 38mm 모델은 55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리버 8800을 탑재했다. 문의 02-6905-3301

Perfect Travel Mate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루이 비통의 호라이즌 55 비즈니스를 추천한다. 빈티지 무드의 모노그램 리넨 캔버스에 컬러풀한 안감을 더한 이 수트케이스는 기내 반입 가능한 실용적 사이즈가 특징이다.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내부, 2개의 플랫 포켓을 갖춘 것 역시 장점. 이번 시즌에는 아티스트 그레이스 코딩턴이 디자인한 그래픽 패치로 전면을 장식해, 여행지를 기록한 듯한 감각을 전한다. 다가오는 연휴, 오랜만의 가족 방문이든 여행이든, 호라이즌 55 비즈니스는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2-3432-1854

Super Strong

강인함, 견고함,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슈퍼 세라믹 워치.

(위부터 차례대로) **샤넬 워치 J12 블루 칼리버 12.1 38MM** 매트 블루 컬러의 세라믹과 스틸 소재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위블로 빅뱅 20주년 기념 티타늄 세라믹 43MM** 가벼운 그레이드 5 티타늄 소재로 메탈락한 광택감을 자랑한다. 5백 피스 한정.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43MM** 은은한 선버스트 그린 다이얼이 세라믹 브레이슬릿과 케이스와 함께 조화를 이룬다. 3천2백3만원. 문의 02-3479-1833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더블 밸런스 휠 오픈워크 41MM** 밤하늘의 짙푸른 색감을 모티브로 탄생한 '블루 뉘, 뉘아주 50' 컬러의 세라믹 소재로 제작했다. 1억5천5백 10만원. 문의 02-543-2999 **불가리 옥토 파니씨모 워치** 샌드 블라스트 및 폴리싱 처리한 블랙 세라믹 소재가 클래식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2천 4백80만원. 문의 02-6105-2120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EXHIBITION

〈까치호랑이 虎鵲(호작)〉展

우리에게 친근한 소재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랑이와 까치에 얽힌 전통 문화 예술의 정수를 접할 수 있는 전시가 있다. 리움미술관 M1 2층에서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상설 기획전 〈까치호랑이 虎鵲(호작)〉이다. 호랑이와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물로, 특히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져 호피도까지 그려 장식할 정도였으며, 까치와 함께 그린 호작도는 조선 후기 민화의 대표적 주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이번 리움 기획전은 까치호랑이의 기원을 보여주는 16세기 말 작품부터 민중 문화 속 해학과 풍자로 자리 잡은 19세기 민화, 그리고 김홍도의 정통 회화에 이르기까지, 호작도의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층적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까치호랑이와 관련된 작품 7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까치호랑이 작품 중 가장 오래된 1592년 작 '호작도(리움미술관 소장)'는 국내 최초로 전시를 통해 공개됐다(일명 '임진왜란' 호랑이). 또 추상적 표현법이 피카소 화풍을 연상시킨다 해서 '피카소 호랑이'라 불리며 해학적 표정이 절로 미소를 자아내는 19세기 '호작도'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리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고미술 상설전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리움스토어(leeumstore.org)에서 이번 전시와 연계해 선보이는 다양한 굿즈도 찾아볼 만하다. 글 **고성연**

'호작도(虎鵲圖)'(조선, 19세기), 작자 미상, 개인 소장. 이미지 제공_리움

보온성을 더해줄 가벼운 롱 스트Longue saison의 스웨이드 코코 다운 베스트 1백70만원 **몽클레르 컬렉션**.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빼들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보온성을 더해줄 캐시미어 소재의 럭스 삼프스 캐시미어 반다나 1백10만원 **셀린느**.

특수 갈바닉 처리를 통해 로즈 컬러를 구현한 파노루나투르비용 1억6천만원대 **글라슈테 오리지널**.

Selection

기능적인 아이템부터 워치 & 주얼리의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스포티 시크 무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허니콤 모티브로 아이코닉한 무드를 연출하는 비 소재 팔찌 4백만원대 **쇼메**.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더한 로즈 골드 소재의 포멀라토 이어링 가격 미정 **포멀라토**.

측면 시야 보호와 고정력이 좋아 격렬한 활동에 적합한 랩핑 선글라스 44만2천원 **오클리 by 에실로룩소티카**.

길이 조절 가능한 플렉싱 시스템이 내장된 크로스 보디 백 2백30만원 **리모와**.

악 0.1개럿의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한 코드 코코 블러쉬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벨 에프크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스포티한 테크니컬 매브릭과 에어어스 가죽 소재에 파이톤 패턴 프린트를 더한 스니커즈 1백60만원대 **미우미우**.

에어매트리스로 휴대성을 높인 캠핑 선글라스 150만원대 **프라다**.

콘퀘스트 41MM 3백10만원 **론진**.

스트랩이 달린 패브릭 홀더를 더한 스틸 워터보틀 1백20만원대 **구찌**.

조거 팬츠 스타일의 오가닉 코튼 울드 아메트 78만원 **스톤 아일랜드**.

몽클레르 컬렉션 0030-8321-0794 **셀린느** 1577-8841 **다미아니** 02-515-1924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샤넬 워치** 080-805-9628 **론진** 02-3479-1940 **리모와** 02-546-3920 **포멀라토** 0030-8321-0441 **에실로룩소티카** 02-501-4436 **쇼메** 02-1670-1180 **스톤 아일랜드** 02-516-2778 **프라다** 02-3442-1831 **구찌** 02-3452-1921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미우미우** 02-541-7443

(위부터 차례대로) **튜더 블랙 베이 크로노** 비자 캐시 앱 레이싱 볼스 F1 팀을 후원하는 튜더.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카운터를 장착한 오팔린 다이얼로 레이싱 감성을 듬뿍 담았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813으로 구동한다. 8백36만원. 문의 02-2112-1251

위블로 스피릿 오브 빅뱅 다크 그린 세라믹 마이크로블라스트 및 폴리시드 처리한 다크 그린 세라믹으로 소재에 대한 브랜드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피스. 크로노그래프 성능을 지닌 HUB4700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2021년까지 페라리 F1 팀을 후원했다. 4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IWC 파일럿 워치 퍼포먼스 크로노그래프 41 메르세데스 페트로나스 F1 팀을 후원하는 브랜드이자 최근 영화 〈F1〉의 스폰서였던 IWC는 레이싱에 진심이다. 이 컬렉션은 메르세데스와 컬래버레이션해 완성한 피스로 출시되기도 했고, 영화 속 F1 팀인 APXGP를 기념하는 버전으로도 출시된 바 있다.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며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69385로 구동한다. 3천8백70만원. 문의 1877-4315

태그호이어 모나코 칼리버 11 크로노그래프 레드불 레이싱 F1 팀을 후원 중인 태그호이어의 레이싱 DNA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 F1 트랙 중 가장 유명한 모나코를 이름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빈티지 블루 다이얼과 2개의 화이트 카운터, '호이어' 로고 각인까지. 1969년 최초의 사각형 방수 시계이자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을 그대로 재현했다. 1천1백15만원. 문의 02-3479-6021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슈퍼 레이싱 제품명에서 느껴지듯 레이싱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을 가득 담은 스페셜 에디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한 44.25mm 케이스에 레이싱 트랙을 연상시키는 벌집 패턴 블랙 샌드위치 다이얼이 인상적. 인덱스, 핸즈 등에는 옐로 슈퍼루미노바®를 매치해 범블비 느낌을 주기도 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 중인 오메가 스파이럿™(Spirate™) 시스템을 적용한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성정민**

Speed Crush

레이싱과 뗄 수 없는 워치 브랜드의 숙명.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ICHI ARTS CENTER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 2025

산업 도시의 미술 축제는 어떻게 성장해가는가

일본의 문화 예술계는 비엔날레가 아니라 트리엔날레(triennale),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가 유독 많다. 올해도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주 무대로 하는 세토우치 트리엔날레가 일찌감치 막을 올렸고, 초가을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가 시동을 걸었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나고야가 속한 아이치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글로벌 현대미술제로, 2010년에 처음 탄생해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9. 13~11. 30).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예술감독은 유난히 관심을 받았는데,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공주인 후르 알-카시미(Hoor Al-Qasimi)가 맡아서다. 미술계에서는 이제 '공주'라는 수식어보다 지구촌을 종횡무진 누비며 활약하는 '워커홀릭'이 더 걸맞은 그녀는 아랍권의 저명한 시인 아도니스의 시집에서 차용한 '재와 장미 사이의 시간(A Time Between Ashes and Roses)'을 주제로 내걸고 이를 통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라는 생명의 존엄을 바탕에 둔 광의의 생태적 질문을 던진다.

#20세기 중반의 아랍 시집에서 받은 창조적 영감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려온 저명한 시인 아도니스(Adonis, 1930)의 본명은 알리 아흐마드 사이드 에스베르(Ali Ahmad Said Esber). 시리아 출신으로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로 레바논을 거쳐 1985년부터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다. 아랍권의 문학적 인습을 타파하려는 혁신적 성향을 지녔던 그를 거부한 문예지에 글을 싣고자 택했다는 필명 아도니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리스신화의 미소년 이름이 맞다.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애인 아레스의 질투를 사는 바람에 생을 마감한 아도니스는 해마다 스러졌다 부활하는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초목의 정령으로 여겨진다. 국내에 번역된 그의 시집 〈너의 낯섦은 나의 낯섦〉(김능우 옮김, 민음사) 중 작가 소개를 보면 신화학자들은 아도니스를 바빌로니아의 '풍요의 신'으로 새 생명의 정기를 불어넣는 탐무즈(Tammuz)의 변형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20세기 중반 그를 비롯한 소위 탐무즈파 아랍권 시인들은 당대 모더니스트 시인 T. S. 엘리엇의 '황무지'에 자극받아 풍요의 신화에서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한 메마른 대지의 소생과 회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아도니스는 1967년 6월 일어난 '6일 전쟁'(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제3차 중동 전쟁)을 지켜보며 슬픔과 희망을 담아 쓴 시집을 냈는데, 그 제목이 〈재와 장미 사이의 시간(A Time Between Ashes and Roses)〉(1970)이다. 은유적으로 전쟁의 상흔(재)과 새로운 시작에의 가능성(장미)을 읊은 이 구절들은 올해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열과 회복'을 담고 있다.

시들어버린 나무는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우는가?
재와 장미 사이의 시간이 오고 있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How can withered trees blossom?
A time between ashes and roses is coming
When everything shall be extinguished
When everything shall begin again
_아도니스의 시집에서 발췌한 구절(1970)

"아이치 트리엔날레 감독을 맡게 됐을 때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스의 시집에서 따온) 이 제목은 제 개인 프로젝트에서 쓴 적이 있는데, 전쟁뿐 아니라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문장과 단어에서 너무나 많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시적인 제목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트리엔날레 현장에서 필자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후르 알-카시미(Hoor Al-Qasimi, b. 1980)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전시 주제로 내세운 문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많은 비극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유효한 울림을 주는 아도니스의 작품을 여러 예술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그들을 통해 다양한 연결 고리를 발견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1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키 비주얼 이미지. 일본 사이타마 출신의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디자인을 맡았다. **2**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주 무대 중 하나인 아이치 아트 센터. 일본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이치현의 현청 소재지인 나고야에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전시 외에도 교육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려진다. 이미지 제공_아이치 트리엔날레 **3** 달라 나세르(Dala Nasser), 'Noah's Tombs'(2025). **4** 미국과 팔레스타인에서 작업하는 듀오인 바셀 아바스 & 루안 아부-람(Basel Abbas and Ruanne Abou-Rahme)의 팔레스타인 등 중동권 춤과 노래를 담아낸 영상 작업 'May amnesia never kiss us on the mouth: Only sounds that tremble through us'(2025). © Aichi Triennale Organizing Committee 후르 알-카시미 예술감독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5** UAE 출신 작가 아프라 알 다헤리(Afra Al Dhaheri)의 여러 작품을 설치한 모습. **6** 한국의 시각 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의 작업 설치 모습. **7** 인도네시아 반둥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개질 작업을 하게 됐다는 물리아나(Mulyana)의 해양 생태계를 펼쳐놓은 거대한 작업 'Between Currents and Bloom'(2019~). 지구온난화로 위기에 처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1, 3, 5~7 Photo by 고성연

SETO CITY

8 인구 감소 등으로 방치되었거나 더 이상 쓰이지 않은 아이치현 세토시의 여러 공간을 무대로도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펼쳐진다. 전시 장소 중 하나인 옛 목욕탕 건물 외관. **9** 세토시의 폐교에서 3D 디지털 렌더링 작업으로 벽과 바닥, 계단 등을 캔버스로 활용한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Adrián Villar Rojas)의 작업. 호모사피엔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기원 등을 담아낸 작업은 1년 반 정도 소요됐다고. **10** 일본 작가 사사키 루이(Rui Sasaki)의 'Unforgettable Residues'. 저마다의 서사를 공유한 세토시 주민들과 함께 식물을 모은 다음 거기에서 나온 하얀 재와 기포를 유리병에 담은 그녀의 작업은 옛 목욕탕 건물에서 녹색 빛을 뿜어내는 아름다운 설치 풍경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11** 멕시코 작가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의 11m 길이 벽화 작업 'The Children'(2025). 벽화 운동과 '경계 없는' 예술 교육 등이 활발히 벌어졌던 시기에 멕시코에 체류했던 일본 작가 기타가와 다미지(Tamiji Kitagawa, 1894~1989)에 영감을 얻기도 한 작품이다. **12** 호주 서부의 원주민 혈통인 로버트 앤드루(Robert Andrew)의 작업.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뿌리와 조상들이 물려준 언어, 정체성 등을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 8, 10 © Aichi Triennale Organizing Committee Photo by Kido
※ 9, 11, 12 Photo by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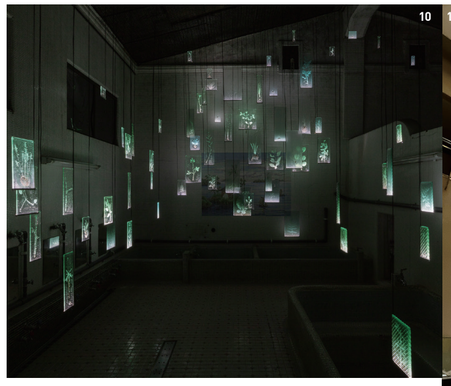
#글로벌 미술 생태계에서 지평을 넓혀가는 아트 파워

지난 2월 샤르자 비엔날레에 이어 이번에 나고야에서 다시 만난 후르 알-카시미는 1972년부터 샤르자를 통치해온 H. H.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카시미의 딸이다. 역사학자이자 철학 박사 출신으로 1993년 샤르자 비엔날레를 탄생시키는 등 모국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후르 알-카시미는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일찌감치 품어 20대에 데뷔했고(공동 예술감독)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 이제는 글로벌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다. 대다수 중동 왕족들처럼 큰 손 컬렉터로서가 아니라 엄연히 예술 플랫폼을 이끄는 능력 있는 리더이자 기획자로서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샤르자에서는 중동 지역의 현대미술 플랫폼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샤르자 비엔날레를 꾸리는 샤르자 미술재단(이하 SAF)의 수장으로 만났지만, 나고야(아이치현)에서는 예술감독으로 마주했다.

마침 인터뷰를 시작하려는 순간 한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트리엔날레 준비에 바빴던 딸의 안부를 묻는 술탄의 전화가 왔다. 간만의 통화였던지라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부친과 잠시 얘기를 나눈 그녀에게 혹시 잦은 출장 탓에 딸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 부친이 섭섭해하지는 않냐고 물었다. "오히려 (바쁜 딸의 존재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동시에 제가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녀는 이렇게 답하면서 싱긋 웃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이어 내년 봄 열릴 시드니 비엔날레 예술감독까지 맡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듯싶은데, 일본에서 본 그녀는 몸은 피곤해도 얼굴은 꽤 편안해 보였다. 필자와의 인터뷰에 앞서 전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영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해서 일본어에 능통하고 수없이 일본에 여행을 왔던 덕분에 현지 문화에도 익숙한 그녀여서일까. 그래도 1회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열렸을 때는 관람객으로 나고야를 찾았는데, 이제 예술감독으로 현지 큐레이터들과 호흡을 맞추고 미술제를 이끈다는 건 분명 감회가 특별했을 법한 커리어의 도약이다. "일본 전역을 다녀봤어요. 나고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좋아요. 필리핀 사람도 많고, 베트남 사람도 많고, 네팔 사람들도 섞여 있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캐주얼한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속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사실 필자에게 초행이었던 나고야의 이미지는 제조업(토요타 본사와 공장이 나고야 시내에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비중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후르 알-카시미 감독의 말처럼 나고야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분야가 발달한 산업 허브인지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와 다수의 비즈니스 방문객이 머무는 아이치현의 현청 소재지다. 그리고 이번 트리엔날레가 펼쳐지는 무대 중 하나인 세토시는 아이치현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개막 주간에 도자기 축제가 막을 올리기도 했다). 나고야 시내에 있는 아이치 아트 센터를 비롯해 아이치현 도자 미술관(세토시), 그리고 세토시의 창고, 폐교, 문 닫은 대중목욕탕 같은 재생 공간이 22개국에서 온 62개 팀의 예술가가 참여한 올해 트리엔날레 전시의 3대 거점이다.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의 파괴와 재생을 얘기하는 다채로운 관점과 스토리텔링을 품은 작업을 설치, 회화, 미디어,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선보이고 있다. 202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작가로 황금사자상을 받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조각가 시몬 리(Simone Leigh)를 비롯해(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예술와 연관된 형태를 차용하는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이 즐겨 쓰는 재료인 청동과 도자로 된 커다란 조각 작품을 선보였다) 아프리카 가나의 정치 난민 가정 출신으로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영화감독이자 예술가 존 아캄프라(John Akomfrah)라든지, 세토시에 자리한 폐교(초등학교)에서 인류의 역사와 공교육 문제를 끄집어내며 3D 모델로 제작한 디지털 이미지로 벽을 덮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Adrián Villar Rojas, 아트선재센터에서 그의 개인전이 진행 중이다), 스기모토 히로시, 가토 이즈미 같은 일본 스타 작가들의 이름도 눈에 띄지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AICHI PREFECTURAL CERAMIC MUSEUM 1

2

아들에게는 언뜻 낯설게 느껴져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국적 작가들의 흥미로운 작업은 국제적인 미술제가 줄 수 있는 '공진'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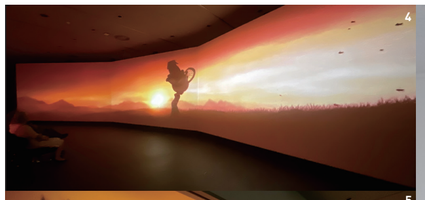
이번 트리엔날레의 수석 큐레이터를 맡은 이다 시호코(Shihoko Iida)는 아도니스의 아름다운 시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복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질문"이라며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시달려온 입장에서 저희(전시 큐레이팅 팀)는 크게 공감할 수 있었고,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 연관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설치 작업을 선보인 달라 나세르(Dala Nasser, b. 1990, 레바논 출신의 작가)는 노아의 무덤(요르단, 튀르키예, 레바논에 있다고 알려진)이 '바다에 묻혀 있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사실 무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물'로 연결돼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재앙에 노출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달라 나세르 말고도 힘 있는 서사와 매혹적인 조형의 조화가 돋보이는 여성 작가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는 여러 국제 미술제에서 영상, 설치, 콜라주 작품 등을 선보여왔고 뉴욕 뉴 뮤지엄에서 회고전(2023)을 갖기도 한 케냐 출신 왕게치 무투(Wangechi Mutu, b. 1972)도 반갑게 다가왔다. 황량한 언덕 위에 한 여성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막바지에 땅이 갈리지고 불길이 치솟으며 순신간에 대자연에 삼켜져버리는 내용의 3채널 영상 작품인 'The End of Carrying All'(2015), 기다란 뱀 모양의 몸에 베개를 베고 잠든 여성의 얼굴을 합친 자전적 성격의 설치 작품으로 몸통 주변에 놓인 왁스로 만든 작은 오브제들이 전시마다 더해지는 'Sleeping Serpent'(2014~2025) 등이 아이치현 도자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25를 수놓은 한국 작가들

한국에서는 고결, 김중원, 조지은으로 구성된 시각 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 그리고 뮤지션에서 출발해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권병준, 이렇게 두 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끼가 덮인 바위와 의성어인 '쿠르르'를 합친 재미난 그룹명을 지닌 이끼바위쿠르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며 생태적 관찰과 접근을 시도해왔는데, 이번 트리엔날레에서는 토요타 시티의 마을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하시노 '다리밑' 축제와 노년층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등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설치 작업과 영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아이치 아트 센터). 직접 만든 로봇으로 몹시도 서정적이면서 강렬한 울림을 주는 연극적 전시를 선보여 국립현대미술관(MMCA) '올해의 작가상'(2023)을 받은 권병준 작가는 이번에 위치 기반의 음향 시스템을 바탕으로 헤드셋을 끼고 야외 공간을 거닐며 미리 채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아이치현 도자 미술관). GPS 안테나를 활용해 1백80군데에 걸쳐 소리 포인트를 심어놓은 잔디밭에서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다 보면 나지막한 읊조림, 재잘거리는 소리, 구슬픈 노랫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일본어, 한국어, 영어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똑바로 서 있으면 '낮의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숙이면 '밤의 소리'로 바뀝니다." 마침 현장에서 만난 권병준 작가는 "1년에 걸쳐 공들인 작업"이라면서 "야외 공간에 최적화된 입체 음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람객 중에서는 1시간 30분 동안 그가 선사한 '소리 산책'에 빠져든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필자도 짧게나마 산책에 나서 잔디밭을 유유히 걷다 보니 막바지에 이르러 익숙한 표정과 자태의 조선시대 석상들과 마주치게 됐다. 온화한 얼굴을 한 채 묵묵히 반겨주는 듯한 석상들을 대하노라니(사실 곧 떠나야 하는 필자의 스케줄을 고려한 작가의 귀띔 덕분에 제대로 찾았지만), 어쩐지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권병준 작가의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가봤다는 후르 알-카시미 감독이 어째서 그의 공간, 작업, 엔지니어링, 그리고 생각에 반해버렸다고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혹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간 중에 나고야를 찾을 기회가 없더라도 현재 서울 송은에서 진행 중인 〈파노라마〉 기획전에서 이끼바위쿠르르, 이주요, 김민애, 최고은 등의 작가들과 더불어 그의 다른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선보이고 있음을 기억해둘 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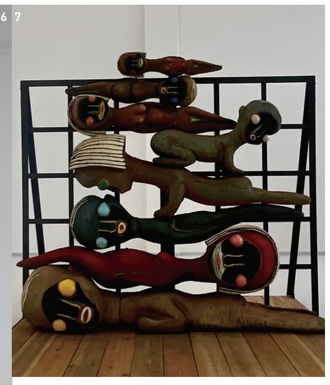
글 **고성연**(아이치현 현지 취재)

3


4

5

6


7

1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주요 전시 무대 중 하나인 아이치현 도자 미술관의 모습. 2 잔디밭을 거닐며 '소리 풍경'에 녹아들 수 있게 해주는 권병준 작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업 'Speak Slowly and It Will Become a Song'(2025). 아이치 트리엔날레 커미션 작품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10. 27, 11. 1 휴일). © Aichi Triennale Organizing Committee Photo by Ryohei 3 권병준, 'Speak Slowly and It Will Become a Song'(2025). 그의 '소리 풍경' 무대에는 조선시대 석상이 있는 곳에도 '소리 포인트'가 있다. 4 케냐 출신 왕게치 무투(Wangechi Mutu)의 영상 작업 'The End of Carrying All'(2015). 한 여성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막바지에 땅이 갈리지고 불길이 치솟으며 순식간에 대자연에 삼켜져버리는 3채널 영상 작품. 5 왕게치 무투의 'The End of Carrying All'과 함께 설치된 작업(2025)으로 침략과 찬탈, 환경 파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6 아프리카 전통 예술에서 엿볼 수 있는 형태를 차용해온 작가 시몬 리(Simone Leigh)의 'Untitled'(2025). © Aichi Triennale Organizing Committee Photo by Ito Tetsuo 7 원초적인 생명체를 표현하는 특유의 색감과 조형이 눈에 띄는 일본 작가 가토 이즈미(Izumi Kato)의 작업.
※ 1, 3~5, 7 Photo by 고성연

바쉐론 콘스탄틴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컴플리케이션 라 프리미에 창립 270주년을 맞이한 메종이 8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한 타임피스. 무려 41개의 컴플리케이션이 담겨 있다.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시간에 따른 천체 추적 기능까지 담았다. 이외에도 퍼페추얼 캘린더 및 문페이즈, 조수 측정, 미닛 리피터 등 수많은 컴플리케이션을 담은 진정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다. 문의 1877-4306

피아제 알티플라노 얼티메이트 컨셉 뚜르비옹 2024년 공개된 150주년 알티플로노 얼티메이트 컨셉 투르비옹 리미티드 에디션에 이어 새로운 컬러 팔레트로 또 한번 선보이는 2mm 두께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옹 워치. 케이스는 내구성이 뛰어난 코발트 합금으로 제작했으며 뒷면에서는 칼리버 970P-UC의 완벽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지름 41.5mm 사이즈로 제공하며 카키 그린 다이얼과 울트라-신 폴리시 메시 패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했다. 문의 1668-1874

Master the Moment

수백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순간, 기계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이 된다.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옹 시데랄 7255 브레게 하우스 창립 25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네 번째 워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투르비옹 분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뉴팩처 최초 플라잉 투르비옹을 선보였다. 하단 브리지 하나로만 지지되는 이 투르비옹을 위해 컴플리케이션을 미스터리 세팅한 것 역시 놀라운 부분. 천문학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딥 블루 컬러의 아벤추린 글라스 공예로 완성한 그랑 푀 에나멜 다이얼은 눈부신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문의 02-9605-357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퍼페추얼 캘린더 150주년 오픈워크 올해 창립 150주년 기념 워치들 중 올 초 출시된 로열 오크 퍼페추얼 캘린더. 티타늄과 벌크 금속 유리(BMG) 등의 조합으로 탄생한 41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인다. 다이얼은 뮤제 아틀리에 오데마 피게에 전시된 회중시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2019년에 출시한 칼리버 5135로 구동하는 마지막 워치다. 나사의 실제 달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문페이즈로 완성했다. 문의 02-543-2999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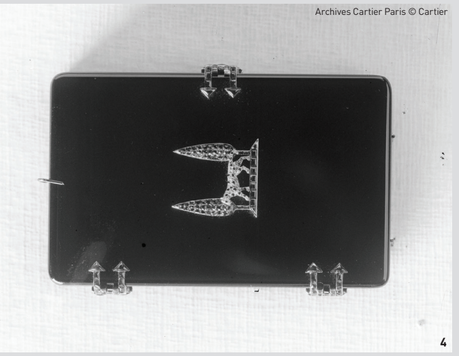
The Timeless Allure

시대를 초월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매혹의 아이콘이 된 까르띠에 팬더. 이제 이 주얼리 컬렉션은 단순한 모티브를 넘어 메종의 영혼이자 예술적 대담함으로 자리매김했다. 첫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고 재해석되며 20세기 주얼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중 하나가 된 까르띠에 팬더 컬렉션을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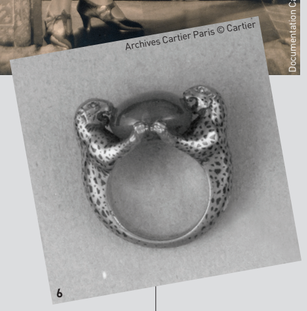
Nils Herrmann, Collection Cartier © Cartier
2

Archives Cartier Paris © Emile Friant
1

Documentation Cartier Paris © Baron Adolph de Meyer
3


Archives Cartier Paris © Cartier
4

Archives Cartier Paris © Cartier
5


Archives Cartier Paris © Cartier
6

Documentation Cartier Paris © Cartie
7

Cecil Beaton Archive © Condé Nast
8

모든 것은 1914년, 스타일의 요람이라 불리던 파리 뤼 드 라 페 13번지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팬더는 오닉스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워치의 형태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팬더의 모습에 매료된 루이 까르띠에가 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든 것. 이 첫 팬더 워치는 매우 추상적인 형태였으나, 색다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손목시계 최초로 팬더의 반점 무늬 모티브를 적용한 블랙 & 화이트 페이빙(paving)은 아르데코 양식의 핵심인 대조법의 도래를 알렸다. 이 팬더 워치가 등장한 해와 같은 해 까르띠에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조르주 바르비에(George Barbier)에게 의뢰한 주얼리 전시 초대장에도 팬더가 등장했다. 이때부터 팬더는 까르띠에의 상징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팬더를 영원한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만든 인물이 있다. 바로 당시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잔느 투상(Jeanne Toussaint)이다. 1933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잔느 투상의 지휘 아래 팬더는 조작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며 점차 컬렉션 형태로 확장되어갔다.

잔느 투상과 팬더의 만남

잔느 투상은 예술가들이 넘쳐나는 파리의 사교 모임에서 늘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든 이들의 뮤즈 같은 존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까르띠에 창립자의 3대손인 루이 까르띠에를 처음 만났다. 1917년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결단력으로 '팬더'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녀에게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나무 사이를 거니는 팬더로 장식한 소지품 케이스를 선물했다. 이후 1919년 잔느 투상은 직접 팬더 모티브를 더한 골드 및 블랙 캔턴 에나멜 소재의 소지품 케이스를 주문했고, 이때부터 팬더는 그녀만의 특별한 심벌이 되었다. 잔느 투상의 뛰어난 심미안과 독창성에 감명받은 루이 까르띠에는 그녀에게 메종 합류를 제안한다. 1933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잔느 투상의 손에서 주얼리, 워치는 물론 핸드백, 소지품 케이스와 담배 케이스에 이어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가 탄생한다.

이때부터 잔느 투상은 뤼 드 라 페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며 주얼리 장인과 보석 세팅 장인으로 구성된 남성 직원들을 이끌어 본격적으로 팬더를 컬렉션 형태로 확장한다. 잔느는 팬더를 모티브로 한 주얼리 제작을 위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뱅센(Vincennes) 동물원을 자주 방문했던 디자이너 피에르 르마르상(Pierre Lemarchand)과 협업했다. 그는 마치 조각품과 같은 새로운 실루엣으로 1940년대를 대변하는 위풍당당한 팬더를 제작했으며, 각종 팬더 모티브를 재해석해 20세기 가장 매혹적인 주얼리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팬더 컬렉션은 당시 또 다른 유명 인사를 위해 제작한 주얼리 피스로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룬다. 바로 기품 있고 사교성이 뛰어났으며 잔느 투상의 주얼리를 사랑했던 윈저 공작부인이다. 까르띠에와 잔느 투상은 윈저 공작부인을 위해 두 가지 팬더 브로치를 제작한다. 이 두 브로치 모두 실제 팬더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재현한 모습이 특징이었다. 하나는 1백16캐럿 이상의 카보숑 컷 에메랄드 위에서 위엄 있는 자태를 선보이는 사실적인 팬더의 모습으로 완성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이 두 피스는 최초로 팬더 모티브를 3차원으로 발전시켜 역사적인 피스로 기록된다.

오직 까르띠에만의 노하우로 완성된 팬더

팬더는 디자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장인 정신이 깃든 예술 작품과도 같다. 하나의 팬더를 만들기까지 디자이너부터 조각가, 캐스터, 주얼러, 보석학자, 젬 커터, 폴리셔, 젬 세터가 함께 협업해 다양한 노하우를 결합해야 한다. 먼저 인그레이빙 전문가가 그린 컬러 왁스 블록에 팬더의 형상을 조각한다. 그 후 금속으로 주조해 초기 형태를 잡는 왁스 조각 유형의 모형을 제작한다. 이때 기술적, 미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주얼러는 이 왁스 조각을 사용해 스톤의 배열, 각도 등을 연구한다. 수천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수 있는지, 팬더의 털을 연상시키는 오닉스를 어디에 세팅할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까르띠에의 도전 과제는 팬더의 털을 한 올 한 올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까르띠에의 주얼러는 팬더 스폿을 표현할 오닉스 등의 스톤 주변에 금속 실을 둘러 결을 묘사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정확한 사이즈로 하나씩 커팅한 스톤을 정해진 위치에 정교하게 세팅한 뒤 가느다란 금속 실을 둘러 스톤을 고정하고, 각각의 디테일을 모두 살린 다음 털의 결을 매끄럽게 다듬어 완성하는 이 독특한 노하우는 팬더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까르띠에의 시그너처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팬더를 완성한다. 허니콤 오픈워크와 조각 파베 세팅, 오닉스 데코 또는 카보숑 컷 사파이어 등은 타 메종에서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세팅이다. 이 예술적인 세팅 기법은 파베 세팅에 입체감과 유려함을 더해주어 동물이 지닌 본연의 다양한 모습을 더욱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메탈은 모습을 감춘 채 동물의 역동적인 움직임만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얼러는 팬더의 최종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절 부위를 조립한다. 일부 모델의 경우 조각, 주조, 스톤 세팅, 동물 관절 장착을 포함한 작업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1 루이 까르띠에의 초상.
2 오닉스와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팬더 반점 모티브로 완성한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
3 1917년 당시 파리 사교 모임에서 늘 독보적 존재감을 자랑했던 잔느 투상.
4 잔느 투상이 까르띠에에 주문해 제작된 소지품 케이스.
5 1933년, 루이 까르띠에의 요청에 의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자리매김한 잔느 투상.
6 1935년 출시된 최초의 입체적 형태의 팬더 링.
7 1948년 윈저 공작 부인을 위해 만든 에메랄드 및 블랙 에나멜 장식의 옐로 골드 팬더 브로치.
8 1976년 잔느 투상의 모습.
9 1983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된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10 까르띠에 매장을 들여다보는 팬더의 모습을 표현한 과거 광고 캠페인 비주얼.
11 1990년 누벨 주얼리 이집트(Nouvelle Joaillerie Égypte) 컬렉션의 커프 브레이슬릿. **12** 1992년 〈보그〉 이탈리아에 실린 화보.
13 2005년 등장한,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각면 처리된 팬더 링. **14**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15 옐로 골드에 오닉스와 블랙 래커, 차보라이트 가넛 2개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6 볼륨감 있게 완성한 옐로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팬더 드 까르띠에 링.
17 화이트 골드에 오닉스와 에메랄드 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웅장한 팬더의 모습을 표현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Vincent Wulveryck, Collection Cartier © Cartier
9

Jean Larrivière pour Egoïste © Cartier
10

Nils Herrmann, Collection Cartier © Cartier
11

© Arthur Elgort Trunk Archive
12

Nils Herrmann, Collection Cartier © Cartier
13

14

© Antoine Pividori © Cartier
15

© Maxime Goret © Cartier
16

© Emmanuel Lafay © Cartier
17

© Amanda Charchian © Cartier

1

© Antoine Pividori © Cartier

2

© Amanda Charchian © Cartier

3

1 화이트 골드와 에메랄드, 오닉스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팬더 페이스 형태의 팬더 드 까르띠에 이어링과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를 착용한 모델.
2 옐로 골드에 블랙 래커와 오닉스, 차보라이트 가닛으로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링.
3 화이트 골드에 오닉스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4 볼륨감 넘치는 실루엣과 정교한 세공으로 유연한 팬더 두 마리를 형상화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시대와 유행을 초월해, 강렬하면서도 자유로운 정신을 담은 까르띠에 팬더는 여전히 모든 여성에게 당당함과 매혹을 선사하는 아이콘으로 존재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영감

팬더 컬렉션은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처음 등장한 이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조각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형태로 변모하며 진화해온 것. 현대에 와서 팬더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본래의 야생적 이미지에서 때로는 사랑스럽거나 장난스러운 팔색조 매력을 더하며 강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팬더의 정교한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갖춘 채 이외의 요소를 모두 덜어내 뛰어난 착용감과 심플한 매력을 강조한 팬더 드 까르띠에 주얼리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 팬더 드 까르띠에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때로는 두 마리의 팬더가 등장해 볼륨감을 더하고 팬더끼리 교감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생명력과 생동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날카로운 눈빛과 섬세한 표정이 돋보이는 두 마리 팬더는 토크 네크리스, 뱅글 브레이슬릿, 반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얼리로 재탄생했다. 마디 구조를 갖춘 목걸이와 팔찌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2개의 부품을 2개의 골드 브레이드로 교차시키고, 팬더 머리 안에 위치한 2개의 스프링을 연결해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착용감이 우수하고 유연하다.

반면 한 마리의 팬더를 중앙에 두어 뮤즈이자 주인공으로 표현한 제품도 있다. 15.28캐럿의 잠비아산 에메랄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는 팬더가 이 보석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해 웅장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다른 링에서는 팬더의 부드러운 곡선미보다는 기하학적이고 건축적인 직선의 아름다움을 살려 강렬한 야성미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팬더가 시계 페이스를 들여다보며 다가가는 듯한 모습의 프레셔스 워치, 워치의 페이스를 물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시간을 움켜쥔 팬더의 모습을 형상화한 워치 컬렉션까지, 더 다채로워진 팬더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콘인 팬더 드 까르띠에는 주얼리와 워치메이킹 모두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 Maxime Govet © Cartier

5

© Amanda Charchian © Cartier

6

© Amanda Charchian © Cartier

4

5 마치 팬더가 15.28캐럿의 잠비아산 에메랄드에 덤벼드는 듯한 자세를 섬세하게 묘사한 팬더 이실레 네크리스.
6 우아하고 매혹적인 컬러로 완성한 섬세한 기요셰 다이얼이 돋보이는 라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7 날렵하게 달려드는 팬더의 생생한 움직임이 잘 표현된 팬더 주얼리 워치.
8 유연한 두 마리 팬더의 얼굴을 섬세하게 묘사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9 팬더의 포식자다운 강한 턱처럼 각면 처리한 옐로 골드 소재의 팬더 드 까르띠에 링과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모델.

잠비아산 에메랄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는 팬더가 이 보석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해 웅장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다른 링에서는 팬더의 부드러운 곡선미보다는 기하학적이고 건축적인 직선의 아름다움을 살려 강렬한 야성미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팬더가 시계 페이스를 들여다보며 다가가는 듯한 모습의 프레셔스 워치, 워치의 페이스를 물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시간을 움켜쥔 팬더의 모습을 형상화한 워치 컬렉션까지, 더 다채로워진 팬더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콘인 팬더 드 까르띠에는 주얼리와 워치메이킹 모두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현대의 팬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오늘날 팬더는 야성적 카리스마와 동시에 사랑스럽고 장난스러운 매력을 아우르며, 까르띠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팔색조 같은 존재로 진화했다. 착용감과 심플한 우아함을 강조한 주얼리 라인부터 장엄한 하이 주얼리 작품에 이르기까지, 팬더는 늘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또 까르띠에는 메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리치몬트, 케어링과 함께 '워치 & 주얼리 이니셔티브 2030'을 발족하며 저탄소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산업을 향한 여정에 앞장서고 있다. "주얼리 산업은 지구의 자원과 사람들의 노하우에 의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는 시릴 비네론 회장의 말처럼, 팬더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시대와 유행을 초월해, 강렬하면서도 자유로운 정신을 담은 까르띠에 팬더는 여전히 모든 여성에게 당당함과 매혹을 선사하는 아이콘으로 존재한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 Amanda Charchian © Cartier

7

© Camille Blanchet © Cartier

8

© Amanda Charchian © Cartier

9

Highlights of F/W Runways

트렌드의 시작점인 런웨이에서 짚어본 일곱 가지 굵직한 남성 백 & 슈즈 트렌드.

Saint Laurent

Dolce & Gabbana

Burberry

MM6 Maison Margiela

GO HIGHER

여성의 전유물이던 롱부츠가 남성 컬렉션을 점령했다. 버클 디테일이 가득한 미디 부츠를 선보인 돌체앤가바나, 승마 부츠를 연상시키는 버버리, 과감한 절개와 스티치가 조화를 이루는 청키한 블랙 부츠를 등장시킨 MM6 메종 마르지엘라 등이 있다. 그중 생 로랑은 여성들 사이에서 고난도로 통하는 사이하이 부츠를 모델들에게 매칭하고 런웨이에 과감히 내세웠다. 잘 재단된 포멀한 수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이하이 부츠의 조합은 강렬하게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소위 패션은 기세라고 하지 않나. 부츠 길이에 한계를 두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Dolce & Gabbana

Louis Vuitton

Hermès

Fendi

SUPER BIG VS MICRO MINI

양극단을 오가는 패션계의 레이더가 미니 백과 빅 백으로 향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미니 백인가, 실용성과 더불어 타고난 존재감을 발휘하는 빅 백인가.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공통점은 하나. 불필요한 장식은 기꺼이 배제하고 오로지 크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돌체앤가바나는 노출된 지퍼와 길게 늘어뜨린 숄더 스트랩만으로 토트백을 완성했고, 에르메스는 버킨 백을 상징하는 장식적 요소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스크린 프린팅으로 대신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반면 루이 비통, 디올,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한 손으로 가릴 만한 마이크로 미니 백을 선보였으며, 펜디는 룩과 백의 컬러를 통일하고 소재의 질감 차이를 두어 미니 백의 기품을 강조했다.

OPEN THE BACK

Gucci

Gu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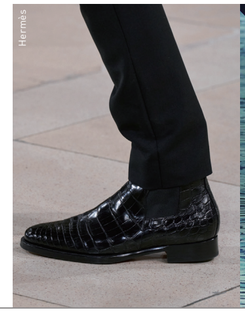
Dior Men

Louis Vuitton

뮬의 제2 전성기가 도래했다. 착용하기 쉬운 오픈된 뒤꿈치는 색다른 멋을 선사한다. 로고 하나로 명료하게 강조하거나 로고로 신발 전면을 장식했으며, 슬리퍼 스타일의 디자인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데님, 스웨이드, 벨벳 등 소재도 꽤 다양한 편. 방한을 생각한다면 두꺼운 양말은 필수다.

POINT OF YOU

하늘을 찌를 듯한 포인티드 토 슈즈의 인기가 심상찮다. 올가을 슬림한 아이템이 대거 쏟아졌는데, 극단적으로 뾰족한 앞코와 가늘픈 실루엣이 특징인 맥퀸, 웨스턴 스타일의 앵클부츠를 선보인 프라다가 가장 좋은 예다. 날렵한 셰이프가 부담스럽다면 바지 길이를 길게 늘려 신발의 절반을 가리는 선택을 한 미우미우 런웨이를 참고해도 좋다.


Hermès

Prada

Miu Miu

McQueen

Louis Vuitton

Mosch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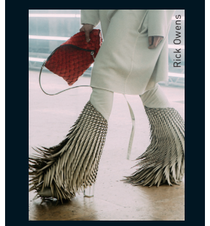
Louis Vuitton

Giorgio Arm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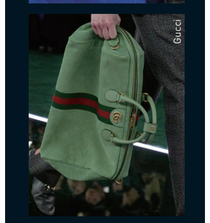
THE BACKPACKING

사이즈는 무조건 크게, 포켓 디테일은 선택이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앞다퉈 백팩을 내세우고 있다. 큼직한 두 포켓을 가방 전면에 배치한 루이 비통을 필두로 매듭 디테일의 백팩을 뽐낸 모스키노, 지퍼 포켓을 가미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있다. 토트백을 다루듯 손에 살포시 들고 캐워크 하는 모델은 인상적이기까지 하다. 두 손에 자유를!

HOLD LIKE THIS!


Rick Owens

Burberry


Gucci

사이즈와 형태 모두 상관없다. 무심한 듯 분방하게, 가방은 무조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스타일링 팁이다. 설령 무게가 나가더라도 편안한 듯 연출하는 법도 잊지 말자.

Burberry

Valentino Garavani

Louis Vuitton

Valentino Garavani

Celine

Prada

PATTERN PARADISE

레오퍼드, 플라워, 도트, 체크 등 다채로운 패턴의 슈즈가 런웨이를 풍성하게 채웠다. 돌체앤가바나와 루이 비통은 강렬한 레오퍼드를, 프라다는 플라워 프린트를 수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센슈얼한 파이톤 소재를 선택한 셀린느, 하운즈투스 체크를 비롯해 동그란 스터드 장식을 도트 패턴으로 완성한 발렌티노가 있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모노톤의 가을, 겨울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줄 예정이다. 에디터 **김하얀, 신정임**

The Eternal Iconic

가방 전면에 자리한 트라이앵글 로고는 하우스의 단단한 뿌리를 상징하고, 로고를 중심으로 엄정한 대칭을 이루는 네모반듯한 셰이프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다. 프라다 갤러리아(Galleria) 백은 형태적으로 해체하기보다 클래식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디테일과 디자인을 적재적소에 적용해 재해석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디자인의 영속성과 하우스의 창의적 비전을 증명하려는 듯 갤러리아 백은 늘 색다르며, 섬세한 듯 대담하게, 그리고 무한히 피어나고 있다.

1 프라다는 갤러리아 백을 찬미하는 의미로 매년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번 해에는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연출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해 그 어느 때보다 갤러리아 백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
2 파이톤 레더와 롱 핸들, 가로로 긴 구조적 실루엣으로 완성한 갤러리아 백.
3 캐멀 컬러 송아지가죽 소재를 사용해 우아한 멋을 전하는 갤러리아 미디엄 핸드백.
4 스터드 디테일의 레더 프린지를 백 전면에 장식해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격이며,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송아지가죽 소재 갤러리아 백.
5 평소 크기가 작은 백을 선호한다면 엘로 송아지가죽 소재의 갤러리아 미니 백을 추천한다.
6 화이트 송아지가죽 소재 갤러리아 미디엄 핸드백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모노톤의 시즌리스 아이템이다.

The Endless

정형성과 실용성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프라다는 늘 남다른 도전을 감행한다. 프라다만의 끊임없는 상상력과 실행력, 독창적 디자인이 응축된 결과물, 바로 갤러리아 백 이야기다. 2007년에 처음 등장해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진화해오고 있으며, 고유의 네모반듯한 구조적 셰이프와 정제된 실루엣에 담긴 상징성은 주목할 만하다. 때로는 선명한 색감과 함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하거나, 가방 전면에 아플리케 자수를 배치해 작품성을 더하기도 한다. 파이톤, 타조가죽 등 소재의 변주를 통해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며, 하우스에서 자주 사용하던 핵심 디테일인 프린지를 갤러리아 백 전면에 장식해 역동적인 실루엣을 구현하기도. 이뿐만이 아니다. 가방의 세로 사이즈를 줄이고 가로 사이즈를 늘리는가 하면 롱 핸들을 과감하게 추가해 동시대적 감성을 유연하게 담아낸다.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사이즈도 다채로운 편이다.

Creative Rituals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갤러리아 백을 선보일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는 캠페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에도 역시 스칼렛 요한슨이 캠페인에 등장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감독이자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인 요르고스 란티모스(Yorgos Lanthimos)의 연출 아래 특유의 복잡한 서사와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압도한다. 현대의 삶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배경 속에서 이와 상반되는 스칼렛 요한슨의 분방하고 기묘한 모션이 포착되고, 그 중심에 갤러리아 백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어질 듯 끊어지는 장면들은 복잡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게 단단히 붙든다. 특히 캠페인 속 스칼렛 요한슨은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재탄생되며 다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 이는 무한히 변주되는 갤러리아 백과 교차된다. 마치 아트와 영화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캠페인을 통해 시즌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갤러리아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문의 02-3442-1830

> *"삼각형 로고, 우아한 소재와 반듯한 실루엣, 넉넉하면서도 실용적인 내부 디자인과 포켓 등 갤러리아 백을 이루는 모든 디자인적 요소는 완벽하게 조화롭고,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상징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유연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통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갤러리아 미디엄 핸드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왼쪽) 가방 전면에 수놓은 웨스턴
무드의 스티치와 그러데이션 워싱이 만나
색다른 분위기를 전하는 송아지가죽
소재의 갤러리아 미니 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오른쪽) 송아지가죽에 불규칙한
빗살무늬 텍스처를 더해 내구성을 높인
갤러리아 사피아노 미니 백, 티없는
화이트 송아지가죽 소재에 브랜드 고유의
삼각형 로고를 더해 모던하게 완성한
갤러리아 미디엄 핸드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에디터 **김하얀**

포토그래퍼 **김홍수**

Get The List

워치와 주얼리, 패션, 액세서리까지. 가을 남자를 위한 여덟 가지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JEONG SEOK HEON**

FRED

(위부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멀티플 브레이슬릿 라지 모델,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포스텐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포인트를 준 포스텐 링 모두 가격 미정, 핑크 골드로 이뤄진 세 가지 다른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포스텐 라이즈 링 9백73만원 모두 **프레드**. 문의 02-514-3721

FENDI

블랙 컬러 FF 패턴 패딩 나일론 소재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드는 펜디 루이 백 라지. 은은한 샤이니 엠보싱 텍스처가 고급스러움을 전하며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편의성을 제공한다. 3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PRADA

빈티지한 무드를 더한 스웨이드 소재의 더플백. 부드럽고 넉넉한 실루엣에 노출 스티치와 레더링 로고 장식으로 완성했다.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이 돋보인다. 8백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TIFFANY & CO.

뉴욕의 정신을 구현한 T 모티브로 완성한 구조적 디자인으로 남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위부터 18K 로즈·화이트·옐로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한 티파니 T1 네로우 다이아몬드 힌지드 뱅글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BVLGARI

(위부터)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 나선을 따라 스터드와 블랙 세라믹으로 장식한 비제로원 락 브레이슬릿 1천 4백50만원, 로즈 골드에 블랙 세라믹으로 장식한 비제로원 링 4백15만원, 로즈 골드 소재에 오픈워크 나선형 로고를 더한 비제로원 링 2백70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DIOR MEN

2025-26 겨울 패션쇼에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하우스 코드를 재정의해 첫선을 보인 디올 팜마레스 지퍼 앵클부츠. 블랙 컬러의 글라세 카프 스킨에 톤온톤 새틴 보를 매치해 쿠튀르적 터치를 가미했다.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LORO PIANA

고급스러운 소재로 남다른 스타일과 텍스처를 선보이는 로로피아나의 베스트. 캐시미어와 리넨을 사용해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을 선사하며 우아한 무드를 전하는 브레이머 베스트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BREGUET

브랜드 창립 2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두 번째 타임피스로 브레게 골드로 완성한 지름 32.8mm의 케이스와 과거 탁트 워치에서 영감받은 시그너처 블루 기요셰 그랑 푀 다이얼의 조화가 특징인 트래디션 7035 6천9백만원대 **브레게**. 문의 02-6905-3571 에디터 **성정민**

autuMAN personAN

가을, 남자의 시간. 풍성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뉴 룩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선플라워 자카드 더블브레스트
재킷,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맥퀸.**
다크 브라운 램 스킨 롱 코트
가격 미정 **페라가모.**

캐시미어와 울 소재 그레이 카디건
7백만원대, 비스코스 셔츠 2백만원대,
플리스 울 팬츠 1백만원대,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만원대 모두 **펜디.**

울 트위드 체크 맥 코트 가격 미정,
리브드 럼보 티셔츠 가격 미정, 데님
트러커 재킷 가격 미정, 데님 팬츠 가격
미정, 스웨이드 카프 스킨 트리옹프
아담 로퍼 1백30만원 모두 **셀린느.**

다미에 임브로이더드 카디건
8백37만원, 워크 웨어 팬츠
2백22만원 모두 **루이 비통.**
베이지 캐시미어 & 울 카디건
2백만원대 **펜디.**

나파 레더 재킷 9백20만원, 체크 코튼 로브 가격 미정, 깅엄 체크 버튼다운 셔츠 2백54만원, 나파 레더 팬츠 6백97만원, 앤티크 레더 부츠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캐시미어 카디건, 니트 톱, 그레이 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토즈.**
캐시미어 터틀넥 톱 가격 미정 **에르메스.**

그레이 벨트 재킷, 화이트 러플 셔츠, 블랙
터틀넥 톱,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V 로고 시그너처 코튼 햇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패딩 셔츠 재킷 3백6만원, 코튼 개버딘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몽클레르 X**
길가 팜 디자인 by 도넛드 글로버.
스트라이프 셔츠, 레이스업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Xi(D2ND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38-6008
셀린느 1577-8841
루이 비통 02-3432-1854
펜디 02-544-1925
프라다 02-3442-1831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맥퀸 02-6102-2226
페라가모 02-3430-7854
몽클레르 0030-8321-0794

Enjoy, Tastes of Europe!

지난여름, 유럽연합(EU)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약 14일간 서울에서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선보였다.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럽 식음료의 유산을 기념하는 장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파인 다이닝, 캐주얼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브랜드와 함께 18가지의 특별한 요리를 소개하며 유럽산 식음료의 맛과 품질, 풍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럽의 맛을 향유하다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전통 음식을 자유롭게 탐닉할 수 있는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하면서 유럽만의 고유 식문화를 알렸다. 크리미한 치즈와 유제품부터 프리미엄 육류, 올리브 오일, 잼과 제과류에 이르기까지 유럽산 식재료의 진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다.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식품 안전성, 지속 가능성, 정통성을 자랑하는 유럽의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송아지 고기, 덴마크 다나블루(Danablu) PGI 치즈, 스페인 퀘소 만체고(Queso Manchego) PDO 치즈, 네덜란드 유기농 강낭콩을 넣은 요리를 비롯해 미식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메뉴도 준비했다. 프랑스 시드르 브랜디와 그리스산 그릭 요거트, 헝가리 꿀, 폴란드 PGI 보드카(Polska Wódka PGI)에서 영감받은 칵테일은 유럽산 식재료의 무궁무진한 맛을 더욱 배가했다.

>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는 미식가들에게 유럽산 식음료의 특별한 맛과 뛰어난 품질, 풍부한 풍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는 오랜 유산과 정통성,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엄격한 기준까지, 유럽연합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인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인증 제도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장인 정신이 반영되었음을 보증한다. 또 유럽연합 유기농 로고(EU organic logo)는 엄격한 환경보호 및 동물 복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유럽산 농식품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한다.

집에서 즐기는 유럽의 맛

유럽연합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6회에 걸쳐 쿠킹 클래스를 오픈했다.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 메뉴를 개발한 셰프가 직접 고품질 유럽산 식재료를 활용해 레스토랑 위크의 요리를 재현하며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유럽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레시피와 요리 비결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 그중에서 이번 행사를 아쉽게 놓친 이들을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레시피를 공개한다. 그리고 체코 체스케 피보(Ceske Pivo) PGI 맥주, 루마니아 데알루 마레(Dealu Mare) PDO 와인, 리투아니아 스타슬리스케스(Stakliškės) PGI 스피리츠 등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다채로운 유럽산 주류도 추천한다. 품질과 정통성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유럽연합의 헌신으로 길러낸 PDO, PGI, 유기농 식재료를 활용한 세 가지 레시피를 지금 확인해보자. '즐기세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에디터 **김하얀**

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ENJOY IT'S FROM EUROPE

(네 가지 치즈 리소토)

페리지

파인 다이닝
임홍근 셰프

재료

이탈리아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PDO 치즈	**40g**
그리스산 페타 PDO 치즈	**10g**
덴마크산 다나블루 PGI 치즈	**50g**
스페인산 퀘소 만체고 PDO 치즈	**30g**
쌀(리소토용)	**160g**
비트	**1개**
화이트 와인	**25g**
채수	**1L**
우유	**50g**
생크림	**50g**
벨기에산 버터	**50g**
헤이즐넛	**50g**
불가리아산 꿀	**10g**
소금 약간	
물 적당량	

레시피

비트 퓌레

1. 깨끗이 씻은 비트를 쿠킹 포일로 감싼 다음 190℃로 예열해둔 오븐에 넣고 2시간 정도 구운 뒤,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갈아 퓌레를 만든다.

블루치즈 소스

2. 같은 양의 우유와 생크림을 섞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에서 졸인다. 덴마크산 다나블루 PGI 치즈를 곱게 갈아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가며 따뜻하게 유지한다.
3. 그리스산 페타 PDO 치즈를 미리 잘게 부숴놓고, 플레이팅 직전에 따뜻한 블루치즈 소스에 넣어 섞는다.

치즈 와플

4. 스페인산 퀘소 만체고 PDO 치즈를 강판에 곱게 갈고, 약한 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얇게 펼쳐 굽는다. 치즈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접시에 담아 식힌다. 그런 다음 바삭해진 치즈를 손으로 부숴 원하는 크기로 준비한다.

헤이즐넛 소스

5. 팬에 헤이즐넛을 살짝 볶은 다음, 불가리아산 꿀과 물을 넣고 함께 곱게 간 후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조절한다.

리소토

6. 중약불로 달군 팬에 쌀을 넣고 1~2분 정도 볶는다. 그런 다음 따로 준비해둔 채수를 약한 불에서 계속 따뜻하게 데운다.
7. 화이트 와인을 붓고 쌀에 스며들도록 더 볶다가, 채수를 조금씩 나눠 넣으면서 12분 정도 저어가며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한다.
8. 쌀이 거의 다 익었을 때 ①의 비트 퓌레를 넣어 색감과 풍미를 더한다.
9. 불을 끄고 팬에 이탈리아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PDO 치즈와 벨기에산 버터를 넣어 잘 섞는다. 이때 리소토의 농도와 간을 조절한다.

완성 및 마무리

10. ②의 따뜻한 블루치즈 소스에 ③의 부숴둔 페타 치즈를 넣고 잘 섞는다.
11. 접시에 리소토를 담고 블루치즈 소스를 뿌린다. ⑤의 헤이즐넛 소스를 곁들이고 ④의 퀘소 만체고 치즈 와플을 위에 올려 완성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PGI)
지리적 표시 보호는 제품명과 원산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생산, 가공, 제조 단계 중 하나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식료품에 그 지역을 명시합니다.

가지 소스를 곁들인 강낭콩 샐러드

베지위켄드

캐주얼 레스토랑
송호윤 셰프

재료

네덜란드산 유기농 강낭콩	**2**큰술
그리스산 칼라마타 PDO 올리브	**2**개
이탈리아산 말린 토마토 절임	**1**큰술
가지	**1**개
폴란드산 우유	**100ml**
슬로바키아산 크림	**50ml**
마늘	**2**톨
잘게 썬 이탈리안 파슬리	**2**작은술
포르투갈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약간	

유기농 인증(EU organic logo)
식료품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재배되고, 나머지 5% 역시 엄격한 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강낭콩 샐러드

1. 네덜란드산 유기농 강낭콩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가볍게 빼둔다.
2. 그리스산 칼라마타 PDO 올리브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다진다.
3. 이탈리아산 말린 토마토 절임은 기름을 제거한 뒤 잘게 다진다.
4. 그릇에 강낭콩, 다진 올리브와 말린 토마토 절임을 넣고 섞는다.

가지 소스

5.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작게 깍둑썰기 한다. 마늘을 얇게 저민 뒤 팬에 넣고 포르투갈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 가지를 넣은 다음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볶는다.
6.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슬로바키아산 크림과 폴란드산 우유를 넣고 중약불에서 끓인다.
7. 가지가 완전히 익으면 블렌더로 곱게 간 뒤, 체에 걸러 부드러운 소스를 만든다.

완성 및 마무리

8. 접시에 ⑦의 가지 소스를 먼저 담고, 위에 ④의 강낭콩 샐러드를 올린다.
9. 마지막으로 잘게 썬 이탈리안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한다.

더 많은 캠페인 소식을 확인하세요.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https://enjoy-its-from-europe.campaign.europa.eu/south-korea/ko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EUAgriFood_Korea

EUROPEAN UNION

ENJOY IT'S FROM EUROPE

썸머 고르곤졸라 젤라토 파르페

소나

디저트 카페
성현아 셰프

재료

이탈리아산 고르곤졸라 PDO 치즈	**32g**
프랑스산 발효 버터	**45g**
독일산 멸균 우유	**350g**
크로아티아산 유기농 무화과 & 오렌지 스프레드	**40g**
그리스산 칼라마타 PDO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설탕	**105g**
황설탕	**10g**
호두	**40g**
에스토니아산 꿀	**16g**
생크림	**250g**
오스트리아산 크림치즈	**113g**
달걀흰자	**40g**
중력분	**40g**
잘게 부순 팝콘 약간	
소금 약간	

레시피

연유

1. 큰 냄비에 독일산 멸균 우유를 붓고 설탕 65g을 넣어 강한 불에서 끓인다.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30~40분간 졸여 연유를 만든다. 그런 다음 고운체에 걸러 내열 용기에 담아둔다.

캐러멜라이즈드 호두

2. 프랑스산 발효 버터 5g, 황설탕, 에스토니아산 꿀, 호두, 소금을 한데 섞는다. 170℃로 예열한 오븐에 8분간 굽고, 호두가 고루 익도록 베이킹 트레이를 돌려 5분 더 구운 뒤 식혀 캐러멜라이즈드 호두를 만든다.

고르곤졸라 치즈 케이크 젤라토

3. 볼에 생크림을 넣고 부드러운 뿔 모양이 생길 때까지 휘핑한 뒤 냉장고에 넣어둔다.
4. 다른 볼에 오스트리아산 크림치즈를 넣고 중속으로 휘핑한다. 이탈리아산 고르곤졸라 PDO 치즈를 넣고 두 치즈가 매끄럽게 잘 섞일 때까지 휘핑한다.
5. ④의 잘 섞인 치즈 혼합물에 ①의 연유 175g과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서 가볍게 섞은 다음, ③의 휘핑해둔 생크림을 조심스럽게 포개듯이 섞는다.
6. 미리 차갑게 식힌 몰드에 ⑤의 치즈와 생크림 혼합물의 절반을 붓고, ②의 캐러멜라이즈드 호두 절반, 크로아티아산 무화과 & 오렌지 스프레드 절반을 올린다. 그런 다음 젓가락이나 나이프로 마블링 효과를 준다. 나머지 절반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7. 냉동실에서 최소 5시간 이상 얼린다.

튀일

8. 프랑스산 발효 버터 40g과 설탕 40g을 섞고, 달걀흰자와 체 친 중력분을 넣어 튀일 반죽을 만든다.
9. 오븐 팬에 달라붙지 않도록 베이킹 시트를 깐다. ⑧의 튀일 반죽을 얇게 펼치고, 호두와 팝콘 가루를 뿌린다. 160℃에서 5~7분간 구운 뒤, 오븐에서 꺼내 따뜻한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식힌다.

완성 및 마무리

10. 파르페용 컵에 ⑦의 얼려둔 젤라토를 한 스쿱 떠 넣고, 그리스산 칼라마타 PDO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린 뒤, ⑨의 튀일과 ②의 캐러멜라이즈드 호두로 장식한다.

원산지 명칭 보호(PDO)
원산지와 식료품의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보증합니다. 생산 및 가공, 제조까지 모두 특정 지역 내에서 완료됩니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이솝 어브브 어스 스테오라 오 드 퍼퓸** 조향사 셀린느 바렐이 그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신비스러움을 표현한 향수. 클래식한 앰버 향을 독특하게 표현한 점이 매력적이다. 50ml 22만5천원. 문의 1800-1987 **에디션 드 퍼퓸 프레데릭 말 덩 때 브라** '당신의 품 안에서'라는 뜻을 지닌 향수로 따뜻한 사람의 피부 향을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 특징. 우드와 캐시미어, 클로브, 화이트 머스크를 적절하게 조합했다. 100ml 43만8천원. 문의 02-790-0577 **크리스챤 디올 뷰티 앙브르 뉘 에스프리 드 퍼퓸 앙브르 뉘** 머스크 향 사이로 시나몬과 카다멈이 어우러진 스파이스 노트가 느껴지고, 뒤이어 부드러운 노트가 조화를 이룬다. 마치 매혹적인 꿈속에 있는 듯 잊지 못할 강렬한 향. 80ml 65만원. 문의 080-342-9500 **펜디 라 바게트 오 드 퍼퓸** 델피나 델레트레즈 펜디의 쌍둥이 아들, 타지오와 다르도에게서 영감 받아 탄생한 향수로 로마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강렬한 향을 표현했다. 바게트 백의 감각적인 벨벳 가죽 노트를 더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100ml 40만원대. 문의 02-544-1925 **샤넬 블루 드 샤넬 빠르펭 렉스클루시프** 어떠한 한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남성을 위한 딥 블루 컬러 보틀을 적용한 향수. 강렬하면서도 신비로운 아로마틱 우디 앰버 향이 가을, 겨울과 잘 어울린다. 50ml 18만1천원. 문의 080-805-9638 **로에베 퍼퓸 로에베 7 엘릭시르 오 드 퍼퓸**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향수를 재해석한 향으로 록 로즈의 독특함에 파출리, 레드 페퍼 베리, 앰버 노트를 담아 강렬하게 다가온다.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영감받은 영원한 신비로움을 표현했다. 100ml 42만3천원. 문의 02-3479-1484 **에르메스 H24 오 드 퍼퓸** 현대적인 남성의 도약을 표현한 공기역학적 라인이 돋보이는 향수 보틀이 매력적. 나르시스 앱솔루트, 클라리 세이지, 로즈우드, 스클라렌, 이끼 노트로 기존 남성 향수에서 느껴보지 못한 우아함을 표현했다. 100ml 21만4천원. 문의 02-3479-1368 에디터 **성정민**

Men in Scents

가을 남자, 향에 취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Inside Story

자기 관리에 능숙한 요즘 남자의 가방 속을 들여다봤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건강한 광채와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12g 10만7천원. 문의 080-801-9500 **시세이도 맨 클리어 스틱 UV 프로텍터** 간편한 스틱형으로 물, 땀, 고온에서도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한다. 20g 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라부르켓 핸드크림 히노키** 에센셜 오일과 시어버터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건조한 손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한다. 30ml 2만7천원. 문의 1644-449 **유시올 브레쓰 민트볼** 식사 후 또는 입안이 텁텁할 때마다 먹으면 상쾌하게 정리할 수 있다. 20g 7천9백원. 문의 080-023-7007 **록시땅 코쿤 드 세레니떼 릴랙싱 롤 온** 관자놀이, 뒷목 등에 부드럽게 롤링하면 피로와 스트레를 풀 수 있다. 10ml 3만2천원. 문의 02-2054-0500 **딥티크 플레르 드 뽀 솔리드 퍼퓸** 왁스 제형의 고체 향수로 핑크베리와 만다린, 화이트 머스크 향이 조화롭다. 3g 10만2천원. 문의 02-3479-6049 **브리티시엠 에어리 픽스 스프레이** 끈적임 없이 헤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250ml 1만8천원. 문의 02-518-3444 **이솝 데오도란트 롤-온** 와사비 추출물을 포함한 핵심 성분이 체취의 주원인을 억제하고 파출리 등의 에센셜 오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50ml 4만4천원. 문의 1800-1987 **엘린앤게츠 헤어 포마드** 비즈 왁스와 흡수성 지방산 덕분에 헤어의 볼륨과 형태를 잘 잡아준다. 57g 4만2천원. 문의 1644-4490 **샤넬 스틸로 쑤르씰 오뜨 프레시지옹 162 브륀 토프** 날렵한 아이브로 펜슬로 눈썹을 정교하고 또렷하게 채워준다. 0.065g 6만원. 문의 080-805-9638 **바이레도 립 케어 크로모모비아** 시어버터, 해바라기 씨 오일 등이 입술에 풍부한 영양분을 부여하고 윤기를 더한다. 2.5g 6만원. 문의 1533-7305 **오피신 유니버셀 불리 포켓 콤 블랑 디 오더셔스 더 영기스트** 섬세한 커팅과 정교한 폴리싱 과정을 거친 슬림한 빗 6만1천원. 문의 031-688-5551. 슬라이더 스몰 호보 백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480-0104. 블랙 프레임 선글라스 65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실버 메탈 다펴 네크리스 가격 미정 **맥퀸**. 문의 02-6102-2226. 레더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에디터 **김하얀**

루이 비통 라 보떼 LV 루즈 105 누드 네세서리 브랜드의 첫 번째 하이엔드 립스틱 라인의 차분하고 우아한 누디 핑크 컬러. 모노그램 모티브가 새겨진 패키지 역시 눈여겨볼 것. 3.5g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_by 에디터 **김하얀**

SKIN TONER

오피신 유니버셀 불리 오 이오니제 렉티피에 향이 거의 없는 100% 자연 유래 미네랄 토너로 자극 없이 피부 노폐물을 닦아주며 수분을 충전시켜준다. 200ml 5만2천원. 문의 031-688-5551 _by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계절이 바뀌는 지금, 플로럴과 우디의 깊은 향이 조화를 이루는 향수와 캔들부터 에센셜한 스킨케어, 메이크업으로 완성하는 이달의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후드스킨 시카-티트리 스팟 솔루션 5중 시카, 7종 허브 복합 콤플렉스, 판테놀의 조합으로 피부 진정과 회복을 동시에 케어 가능한 제품. 20ml 1만9천원대. 문의 070-7600-7001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지방시 뷰티 랑떼르디 퍼퓸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플로럴, 우디, 발삼 향이 조화를 이루고 블랙과 골드가 조화를 이루는 보틀 디자인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50ml 21만2천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신정임**

NEW PERFUME

크리스챤 디올 뷰티 퍼퓸 자도르 EDP 자디올 솔리드 퍼퓸 살에 직접 바르는 스틱형 고체 향수. 플로럴 향에 스위트 플럼과 우디 향을 더하니 관능적이다. 3.2g 11만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돌체앤가바나 뷰티 에버아이콘 아이 팔레트 앰버 비너스 가을 컬러 팔레트를 담은 여섯 가지 셰이드로 구성해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6.5g 8만6천원. 문의 02-6905-3470 _by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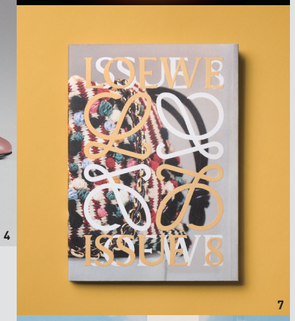
아쿠아 디 파르마 모스토 센티드 캔들 포도즙을 뜻하는 이름처럼 포도밭에 잔뜩 영글어 있는 포도가 생각나는 진한 향. 태우지 않아도 충분히 방 안을 채울 정도로 발향이 좋다. 200g 13만원. 문의 02-6905-3568 _by 에디터 **성정민**

구찌 뷰티 스킨 틴트 FAIR 15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얇게 밀착되며 피부 요철까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바쿠치올(Bakuchiol) 성분으로 피붓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40ml 9만2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NEW FRAGRANCE

탬버린즈 쉘 퍼퓸 핸드 선샤인 머스크, 인센스, 안젤리카를 조합한 선샤인 퍼퓸 향을 크림 타입으로 출시해 수분감과 향을 느낄 수 있어 자주 손이 간다. 30ml 3만2천원대. 문의 1644-1246 _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상품별 자 브레이크타임 (점심시간) 제외한 영업시간 참고



Showroom

1 키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리뉴얼 오픈 이탈리아 럭셔리 테일러 브랜드 키톤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남성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공간을 6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베이지 톤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우드와 메탈 소재 가구를 조화롭게 배치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학을 극대화했다. 문의 02-3479-1325

2 보테가 베네타 제임스 부츠 출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에서 겨울을 맞이해 제임스 부츠를 출시했다. 잉글리시 포멀 슈즈를 모티브로 한 슬림하고 균형 잡힌 실루엣과 클래식 승마 부츠의 구조적인 어퍼 디테일이 특징이다. 메탈릭 트라이앵글과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놋 디테일에서 착안한 코액시얼 브레이드 스트랩이 포인트이며 앵클 부츠와 니하이 부츠, 2가지 스타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8-7694

3 시몬스 올 시즌 구스 듀벳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숙면을 돕는 아이템 '올 시즌 구스 듀벳'을 제안한다. 솜털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헝가리산 구스다운이 90% 이상 함유되었으며, 온도와 습도에 따라 스스로 팽창 및 수축해 뛰어난 통기성과 안락함을 선사한다. 문의 1899-8182

4 에르메스 발레리나 제인 플랫 에르메스에서 가을을 맞이해 발레리나 제인 플랫을 제안한다. 하피 버클 장식 디테일을 더한 발레리나 슈즈로 여성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벨벳 패브릭, 고트 스킨, 메탈릭 고트 스킨 등 다양한 소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2-6622

5 부쉐론 콰트로 그로그랭 프렌치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에서 신제품 콰트로 그로그랭 컬렉션을 출시했다. 기존 링과 이어클립으로 출시되었던 그로그랭 모티브로 제작했다.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버전의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스터드 이어링으로 구성했으며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그래픽한 디자인의 스터드 이어링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42-607-8193

6 샤넬 뷰티 수블리마지 쿠션 샤넬 뷰티에서 수블리마지 라인의 스킨케어 효능과 파운데이션 기능을 결합한 수블리마지 쿠션을 출시했다. 수블리마지 스킨케어의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양플뢰라쥬 오일과 강력한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워터의 효능이 농축되어 있어 매끈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광채를 선사한다. 최대 12시간 동안 수분감을 유지하며 파운데이션의 커버 효과로 고른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문의 080-805-9638

7 로에베 로에베 매거진 〈팬진〉 제8호 출간 로에베에서 자체 매거진 〈팬진〉 제8호를 출간했다. 분기별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호에서는 2025 F/W 컬렉션과 아니 알베르스(Anni Albers)와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의 텍스타일 작품 및 컬러 필드 페인팅을 재해석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냈다. 전 세계 로에베 스토어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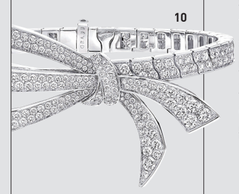
8 리모와 하이브리드 컬렉션 새로운 컬러 공개 리모와에서 하이브리드 컬렉션에 고요한 새벽하늘을 모티브로 제작한 컬러 '스카이 블루'를 공개했다.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셸에 견고한 알루미늄 코너와 프레임을 더한 것이 특징이며, 스카이 블루만의 은은한 그레이가 가미된 푸른 톤은 알루미늄 요소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번 컬러는 캐빈, 체크인 라지, 트렁크 플러스 사이즈로 선보였다. 문의 02-546-3920

9 SK-II SK-II 피테라 에센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SK-II에서 SK-II 피테라 에센스를 제안한다. 독자 개발한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자연 보습 인자를 통해 피부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돕는 피테라™를 90% 이상 함유해 맑고 투명한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023-3333

10 그라프 틸다의 보우 컬렉션 영국의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에서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의 손녀를 향한 사랑을 모티브로 영원한 헌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 가족 간의 굳건한 유대감을 표현한 틸다의 보우 컬렉션을 선보였다. 파베 다이아몬드로 보우의 고리와 곡선을 생생하게 표현했으며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 브로치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했다. 문의 02-2256-6810

11 무헤 프레드 보틀 플로럴 디자인 브랜드 무헤가 국내 단독으로 전개하는 벨기에 컨템퍼러리 글라스웨어 브랜드 Ju.(주)와 함께 화병 '프레드 보틀'을 4가지 컬러로 선보였다. 리사이클링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청량한 다크 그린과 라이트 그린, 오묘하고 깊은 앰버와 은은한 로제 컬러로 이루어졌다. 꽃을 꽂지 않더라도 책 위에 문진처럼 연출하는 등 공간의 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다. 문의 0507-1323-9559, www.mu-he.com

12 프라다 프라다 파인 주얼리 컬렉션 프라다의 미우치아 프라다와 라프 시몬스가 함께 프라다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고유한 색채적 가치와 프라다 컬러 스펙트럼 내 선별된 젬스톤 애미시스트, 아콰마린, 마데이라 시트린, 핑크 모거나이트, 오로베르데 페리도트로 제작한 드롭 이어링, 솔리테어 링, 라인 브레이슬릿, 리비에르 네크리스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42-1831



LOUIS VUITTON